

때 그것은 결코 물질적 실체가 아니다. 성만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은

① 표징(떡과 포도주)

Signification

② 중심사(예수 그리스도)

Matter or Substance

③ 효과(구속, 의, 성화, 영생)

effect

성만찬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은 영적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로마서 8:9에 증거된 것이다.

끝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신앙과 사랑이—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나—있어야 주님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무지,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놓을 때 주님은 자비로써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든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말씀과 신앙에 기초한 생활이 동반되는 신앙적 의지를 가지기를 요망하고 특히 칼빈은 불경건한 자의 성만찬 참여를 경고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고전 11:26,

27)

축도에 관한 고찰

고재수 박사

(N.H. Gootjes, 교수 · 신학박사)

시작하는 말

한국교회에서는 축도문으로 고린도후서 13:13을 사용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개혁교회에는 그 외에 또 민수기 6:24-26에 나오는 제사장이 사용한 말로써 대신하기도 한다. 즉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는 말씀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많이 사용해 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중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글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13에 따라 축도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약속한다

1. 먼저 이 표현의 성격을 생각하다.¹⁾

주보를 보면 이것을 축도라고 한다. 이 축도라는 말에는 축복과 기도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 또 교인들은 이 축도를 하나님의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물론 바울의 말에는 기도의 요소도 포함된 것이 사실이다. 바울이 비록 사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스스로 줄 수는 없다. 이것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교인들에게 주실 것을 부탁한다.²⁾ 하지만 고린도후서 13:13과 같은 말은 기도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이지만 고린도후서 13:13은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 모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은 바울 개인의 소원인가? 바울은 교인들이 은혜, 사랑, 교통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인가? 물론 소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바울은 참으로 교인들이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소원한다. 하지만 소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무엇을 소원할 수 있지만 소원한 내용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소원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구에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건강을 줄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소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1) 고린도후서 13:13은 동사가 없는 문장이다. 즉 헬라어 원문에는 “있을거여다”와 같은 표현은 없다. 그래서 동사만으로는 이 말씀의 성격을 결정할 수 없다.

2) 이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의 말씀은 역대하 30:27에 “기도”라고 하고 있다.

아울러 이 말은 소원보다 훨씬 확실한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축복의 말씀에서 이 사실은 분명해진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³⁾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민 6:27).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말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3:13의 이 말씀의 성격은 민수기에 나타난 축복과 그 성격이 같다. 즉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 백성을 축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오늘날의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그 성격상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도 확실하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밀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빙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눅 10:5, 6). 여기에서도 평안이 약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약속된 평안을 받는다. 그러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약속된 평화를 받지 못한다. 즉 믿는 사람은 그 약속된 축복을 다 받을 것이지만 불신자는 그 말을 들어도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축복도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다. 또 오늘날의 목사들도 예배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다.

3) 이 번역은 정확하지 못하다. 여자적(如字的)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고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이 축복 말씀의 시간에 교인들이 마치 기도하듯이 눈을 감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이 축복 말씀을 전하는 형식을 보아도 분명하다. 만약 교인들이 보지 못한다면 목사는 왜 손을 올리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인가?⁴⁾ 이같이 손을 올리는 것은 사실 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 제스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그들에게 약속된 것임을 확실히 알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13:13은 기도가 아닌 약속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말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자세이어야 한다.

2.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가?

이것 이전에 다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좋은 직업이나 부유한 재산 혹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한다. 이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락한 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신에게 이것을 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이나 목사를 통하여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은혜이다. 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이미 얻어 두신 그 은혜이다.

또 이같은 은혜, 죄사함, 칭의, 영화 등을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축복의 약속을 통해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곧 죄사함, 칭의,

4) 손을 올리고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은 레위기 9:22에 제사장의 축복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다.

제사장이 손을 올리면서 축복을 전하는 것은 유대적 습관이 되었다.(외경 시락 50:20)

그리스도는 이렇게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승천하셨다.(눅 24:50)

영화 등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죄인 됨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건강 등의 물질적인 축복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별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약속하신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사실 이 은혜는 충분한 것이다. 다른 서신서의 인사말에서 바울은 단지 은혜만을 언급한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완전한 축복을 받는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들의 축복을 포함한 것이다.

개인관계에서는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사랑은 인간이 완전하게, 곧 감정이나 노력이나 의지 등을 다 가지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관계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부부관계에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사역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축복 말씀에서 조금은 깨달아 알 수 있다.

또한 성령님의 교통하심도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문맥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성령님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와 사단을 대적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이다.⁵⁾ 죄인인 우리는 이 성령님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죄를 대적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은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또 이 약속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거나 아니면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부의 사랑은 성자의 은혜와 성령을 누리는 것과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교인들은 이 약속을 주일마다 듣고 있지만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깨달아야 한다. 교인들은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친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성령님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것보다 더 적합한 예배의 마무리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훌륭한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울은 이것을 넓은 의미로 기록하지 않고, “너희 모두에게” 썼다. 너희란 서신서의 서문에 언급된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인데 “고린도에 있는

5) “교통케 하심”(코이노니아 : *koinōnia*)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 F. Hauck, art. *koinonos* 등.(TWNT, vol. III, pp. 798f.)

고린도후서 13:13에 대해서는 807페이지를 보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0:16, 베일보서 3:10, 빌레몬서 6절에서는 고린도후서 13:13과 같은 뜻으로 나온다.

참고, C. K. Barrett,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New York : Harper & Row, 1973), pp. 344f.

이것은 성령님이 비인격적인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표현의 배경은 우리가 받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다.(참고, 갈 3:14)

참조, Ch. Hodge,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thians*(repr. Grand Rapids : Eerdmans, 1950), p. 314.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후 1:1). 즉 이 약속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축복을 학교나 회사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내용적으로도 이 사실은 분명하다. 즉 이 말씀은 은혜를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서의 인간만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

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약속도 아니다. 예를 들면 음악회나 다른 행사의 마지막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반적인 모임이지만 이 축복의 약속은 특별한 모임, 곧 교회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약속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와 잘 어울린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약속의 대상을 성도 중에서 제한을 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른만이 이 약속을 받고 어린이는 이 약속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어린이들도 거룩하다고 말한다(고전 7:14).⁶⁾ 그러므로 교인들의 자녀도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떠한가? 그들은 이 약속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바울은 자주 교인들을 책망해야 했고 때로는 원정조차도 언급해야 했다(고전 5:3). 또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10장에서 13장까지

6) 한국어 번역은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지만 사도 바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고린도후서 1:1에는 “성도들에게”(*τοῖς ἀγίοις*)이며, 고린도전서 7:14은 그들이 “거룩”(*ἅγι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고린도전서 7:14에 언급된 신자들의 자녀는 부모 중 하나가 기독교인이 된 아이들이다. 그들조차도 거룩한 것이라면, 부모와 신자가 된 아이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더욱 분명하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부모가 다 믿거나 한편만 믿는 자의 유아라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한국어 번역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원문과는 맞지 않다.

에서 심각한 편면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면 그들도 이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

바울은 일부러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축복의 말에서 “너희”에다 “모두”라는 말을 붙였다. 다른 서신에서는 “너희”만이 나오지만 단지 고린도후서에서만 “너희 모두”란 표현을 사용했다. 결국 바울의 책망을 먼저들은 사람들도 이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들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에게 약속된 완전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심각한 죄인인 교인에게도 약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축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 마디로 하면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이 마지막의 말, 곧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기쁘고 평안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제 4 부

크리스챤의 신앙과 생활